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

김윤희**

<차 례>

1. 논의의 소재 및 서지 검토
2. 18세기 전반기의 대청 인식과 연행 체험의 문학화 양상
3. 이의현의 국문 인식과 <임자연행별곡>의 문학적 특질
4. 18세기 초 사행가사로서의 특징과 그 의의
5. 결론 및 남은 과제

<국문초록>

본고는 최초로 학계에 소개되는 사행가사인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을 살펴 자료적 가치와 시가사적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에 대한 내재적 분석을 통해 작가가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임을 알 수 있었으며 1732년(영조 8)에 사은사로 다녀온 연행 체험이 창작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8세기 초에 창작된 <임자연행별곡>은 사행가사 문학에 대한 통시적 구도의 보완은 물론 시대적 변모 양상을 해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상당하다. 17세기 말을 기점으로 대청 관계가 안정되면서 조선은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조선중화주의'를 지향하며 이를 대외 인식의 주요 지표로 삼게 된다. <임자연행별곡>에는 북방 영토에 대한 회고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지식인들이 자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확인된다. 이는 중화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명분론이 대청 인식의 주요 기제였던 17세기 중반까지의 양상과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명분론의 관념성과

*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 고려대학교

배타성이 약화되면서 연경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현상이 <임자연행별곡>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임자연행별곡>은 이처럼 18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대청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이의현의 문예관과 국문 인식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의현은 영조대의 文衡으로 서인 노론계의 일원이었지만 老莊이나 諸子를 애호하는 등 동시대 다른 문인들에 비해 폭넓고 유연한 문예관을 견지했음이 확인된다. 연행 체험에 대한 연작적 한시도 많이 남겼으며 俗語에 대해서도 典雅한 사용이 전제된다면 그 쓰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시각을 피력한다. 이러한 창작 맥락을 토대로 살펴본 <임자연행별곡>의 주요 특질은 문학적 전거의 활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여정의 객관적 나열이 초래할 수 있는 심미적 환기의 단절을 방지하고 문학적 감흥을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 기록인 <임자연행잡지>와 비교해 본 결과 <임자연행별곡>은 시선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사적 층위에서 경험과 공간을 인식하고 형상화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중반 작품인 <장유가>는 중국에 대한 공간 인식이 명분론에 기반한 '한탄'의 정서로 수렴되는 반면 <임자연행별곡>의 경우 자국의 북방 고토에 대한 회고와 청나라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대 인식과 문학적 표상의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 사행가사인 <무자서행록>과 비교해 보면 <임자연행별곡>에서 확인되는 연경의 문화적 풍경에 대한 관심과 어휘의 특성은 前兆的 표상으로서 의의를 확보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창작된 사행가사의 경우 낯선 문물과 이국적 풍속에 대한 관찰의 시선이 상당히 정밀한 층위로 변모하여 나열과 묘사의 편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행가사인 <임자연행별곡>은 18세기 전반기 대청 사행가사의 존재를 확인케 함과 동시에 공식적·통시적 측면에서의 연구 확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작품임이 분명해 보인다.

핵심어 : 임자연행별곡, 18세기 사행가사, 이의현, 조선중화주의, 북방 고토 인식, 연경 문물의 표상, 전이한 문학

1. 논의의 소재 및 서지 검토

본고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사행가사 <임자연행별곡>¹⁾을 소개하고 작품의 창작 맥락과 문학적 특질을 살펴 자료적 가치와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작품의 서지 사항을 토대로 작가를 고증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임자연행별곡>의 창작 맥락을 살필 것이다. 또한 경험 서사가 형상화 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특질을 전후 시기의 주요 사행가사 작품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18세기 전반기 작품으로서의 특징과 그 의의를 조망할 예정이다.

<임자연행별곡>은 『가사소리』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한 권의 필사집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가사문학관 DB 자료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²⁾ 필사나 보관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필사기(筆寫記)나 주변 기록이 없어 작가 미상의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필사 연도 역시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 필사집은 ‘가사소리’라는 제목이 있는 표지가 있고 다음 장부터 바로 한 작품이 시작되고 있다.³⁾ 이후 합강정가, 연행별곡, 죽엽가, 어부사 퇴계, 슈양가, 반절푸리 라는 제목으로 모두 7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1.5*16.3cm이며 2004년 12월 1일에 전 소장자인 박순호가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임자연행별곡>은 4(3)음보 1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9행 정도 되며 작품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⁴⁾임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작품의 전반부

1) 작품의 서지 정보에서 확인되는 제목은 <연행별곡>인데 17세기에 창작된 유명친의 <연행별곡>과 혼동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작품의 소개가 되는 연행 시기에 따라 <임자연행별곡>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해 본다.

2) <http://www.gasa.go.kr>이며, 자료의 이용을 허락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3) 가사문학관에서는 이 작품의 제목을 <가사소리>로 명명하고 있다.

4) 본관 용인(龍仁). 자 덕재(德哉). 호 도곡(陶谷). 시호 문간(文簡). 전통적인 서인 노론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694년(숙종 20)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檢閱)·정언(正言)·교리(校理)·부응교(副應敎) 등을 거쳐 1708년(숙종 34) 승지(承旨)가 되었다. 1716년 예조참판이 되고 1720년

에 있는 ‘임자 녹월 십일일의 사은스 명 맞기시니’라는 구절을 통해 작가가 임자년에 사은사(謝恩使)로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임자년과 관련된 연행록을 살펴본 중 1732년(영조 8)에 이의현이 남긴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와 <임자연행시(壬子燕行詩)>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의현은 1720년(숙종 46)에 이미 연행을 다녀온 바 있으며 이때의 기록이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와 <경자연행시(庚子燕行詩)>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고 좀더 작품을 읽어나가던 중 더욱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청석관 너다러서 금교역마 가라타니/ 십년 전 도선싱을 산천도 반기는 듯’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여기서 ‘도선생’은 바로 도곡 이의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십년 전이라는 것도 1720년의 연행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의현이 두 번째 연행을 토대로 <임자연행별곡>을 창작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이후 향유·전송되는 과정에서『가사소리』라는 필사집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연행을 토대로 창작된 사행가사 작품들은 17세기에 3편, 19세기에 3편이었고 18세기의 작품은 일본과 관련된 <일동장유가>가 전부였다. 그러므로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임자연행별곡>의 발견은 통시적 구도의 보완은 물론 사행가사의 변모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의현은 영조대의 文衡이었던 만큼 한시나 비평 이론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 성과들이 제출된 바 있다.⁵⁾ 그러나 국문으로 창작된 가사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형조·예조 관서를 역임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연루되어 운산(雲山)에 유배되었다. 1725년(영조 1) 풀려나와 1727년(영조 3) 우의정에 올랐으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쫓겨났다가 다음 해 박필몽(朴弼夢) 등의 반란(叛亂)이 있자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가 되어 난을 평정하고, 1735년 영의정이 되었다. 청백리로도 알려졌지만 글도 잘 해 《경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고, 글씨도 잘 써 여러 비문에 필적을 남겼다. 문집에 《도곡집(陶谷集)》이 있다.

- 5) 도곡 이의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들을 제출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옥자,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 문장론 소고」, 『한문학논집』 17 (근역한문학회, 1999)

작품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의 문예관 및 연행 체험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의의를 확인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우선 작가와 창작 시기가 분명한 만큼 18세기 전반기 대청 인식과 연행 문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 <임자연행별곡>이 창작될 수 있었던 시대적, 문학적 磁場을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의현의 문집인 『도곡집(陶谷集)』에서 연행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특징들을 살펴 <임자연행별곡>과 연계되는 측면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문 혹은 가곡(歌曲)과 관련된 그의 문예관을 살펴 <연행별곡>의 문학적 특질과 상응하는 작가 의식을 확인한 후 동일한 사행 체험을 기록한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와의 비교를 통해 가사 작품으로서 <임자연행별곡>이 담당한 문학적 영역과 그 특징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후 시기의 사행가사 작품들과 연계되는 지점을 확인하여 18세기 전반기 작품으로서 <임자연행별곡>의 특징과 시가사적 위상을 조망함으로써 논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품과 관련된 첫 번째 논의인 만큼 개략적이고 다소 성근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사행가사를 포함한 기행가사의 지형도에 <임자연행별곡>이 적절히 배치되기 위한 일차적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도곡 이의현의 문장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2001)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이의현·신유한·조귀명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31 (한국한문학회, 2003)

김하윤, 「도곡 이의현의 작문론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민복기,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동양한문학회』 25 (동양한문학회, 2007)

장유승, 「도곡 이의현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 31 (한국한시학회, 2009)

2. 18세기 전반기의 대청 인식과 연행 체험의 문학화 양상

2.1 조선중화주의의 형성과 <임자연행별곡>에 투영된 시대 인식

18세기 초는 대청 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조선의 외교 구도도 실질적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북벌론이 주장될 만큼 중화 회복의식과 명분론에 집착했던 17세기 중·후반의 서인 집권층은 점차 청나라의 현실적 위력을 감지하게 된다. 1683년을 기점으로 강희제가 중국의 전 영역을 통치하게 되고 옹정-건륭으로 이어지는 정치적·문화적 안정은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야 조선 지식인들은 속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고 1699년 『史記』를 제외한 서적의 구입을 개방하는 청 禮部의 조치는 조선 지식인들이 청의 문물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지식인들의 대타적 자아 인식도 확장되어 18세기 전반기에는 조선중화주의로 이 양상이 강화된다. 이러한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676(숙종 2)년부터 백여년간 지속된 ‘明史辨誣’ 사건이다. 조선의 역사가 『明史』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자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은 즉각적 수정을 요구했고 연속적인 조선의 요청에 청이 화답한 것은 1732(영조 8)년이다.⁶⁾ 이의현은 바로 이에 대한 사은사로 청에 파견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최근 허태용⁸⁾은 17세기 말

6) 이러한 대청 교섭의 추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논의를 참고했다.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 8』(송실대 한국전통문예연구소, 학교방, 2006)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前此清國所纂明史中。有誣及仁祖反正時事者。楨。相在顯宗朝使燕歸。陳請辨誣。而朝議參差。寢却不施。甲寅後。楨輩復申前說。權奸依其言。遣使辨之。彼國不唯不許。… 昨歲節使之往。又申請刊頒。彼國謦示改正之本。我國以此爲恩。有此遣使之舉矣。是日講筵。文命以右議政入侍。上謂文命曰。今番謝恩使。異於他使行。當以大臣差送。大臣無可去者乎。雖在外大臣。豈不可爲此行。卿與領相 時洪致中爲領議政。素患之外。廟謨不可曠廢。決不當往。兩卿之外。誰當往者。文命曰。在外大臣中。李某可往乎。李某之外。無可往者。某亦有何不去之端乎。(李宜顯, 「壬子燕行雜記」, 『陶谷集』)

8) 허태용, 『조선 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아카넷, 2009), 134~170쪽.

에서 18세기 초의 조선 집권층이 북벌론을 정통론으로 변화시키면서 중화계승의식⁹⁾을 강화해 나갔다고 보았다. 기자의 계보를 추적하고 마한정통론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이 시기 연행을 다녀온 이들의 작품 속에 북방고대사 회복에 대한 소재가 증가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무너진 동아시아 중화질서에 대한 동경과 아쉬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청나라의 강성함에 대한 조선의 ‘자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의현이 남긴 한시 작품들 중에서도 安市城, 遼東雜詠 其4, 紀行述懷次三淵韻 其7 등이 이러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계와 자국의 인식에 대한 변모는 그들의 문예 의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고문론이 활성화된 원인을 이의현의 문장론을 통해 살펴 당대 노론들의 사회·정치적 입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 정순희¹⁰⁾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명분론적 질서가 위태로운 것을 목도하면서 주자주의적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의식 개혁이 바로 고문론이라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9) 조선의 대청 인식을 살펴보면 명청교체부터 17세기 말까지는 명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17세기 말 이후는 조선이 중화라는 인식이 대두된다. 기존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소중화나 조선중화주의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허태용은 이러한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자의 상황을 각각 ‘중화회복의식’과 ‘중화계승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허태용, 위의 책, 22~24쪽) 소중화는 다른 시대나 국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용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으며 조선중화주의는 일본형화이관처럼 ‘조선’ 특유의 중화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17세기 말을 전후로 조선 집권층이 청나라를 인식하는 구도는 변화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양상이 변별되는 지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화회복의식과 중화계승의식은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판단할 역량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선중화주의’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18세기 전반기의 ‘조선중화주의’는 승명성을 전제한 의식이지만 대타적 자아 인식의 측면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10)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도곡 이의현의 문장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화회, 2001), 243~244쪽.

11) 옥경정신의 회복을 통해 주자주의적 세계관을 재정립하려 한 점에서 도곡의 문학관이 정조의 문체반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의현은 18세기 전반기 대청 인식의 변모에 따른 집권층의 이념적 질서와 상관성이 있음은 그것을 문예적 측면에서 실천화한 이들의 자장 내에 위치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자연행별곡>에 투영된 이러한 시대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청석관¹²⁾ 너다러서 금교역마 가라타니
 십년 전 도선싱을 산천도 반기는 듯
 헝헝중헝헝의 경성이 머러지니
 위궐의 달닌 마음 일시들 니즐손나
 톱산성 도라드러 옥류천¹³⁾ 다다르니
 일편석 만고혼은 주천스¹⁴⁾의 필적이요
 동선령 늙흔 고기 허위허위 너머가니
 적병각 붉은 달은 소동파의 후신인가
 구현 교계 지나서서 싱양관 즈간 들며
 직송원¹⁵⁾ 올라서니 톱사¹⁶⁾고국 예 아닌가

②

척문¹⁷⁾을 다다라서 안시성 바라보고
 봉황성 찬운암의 고적 차즈리라
 다스할손 슈당주논 빅만적병 거나리고
 만리도요호여 일편고성 돌넛다가
 일부당관의 만부박기라
 픽적고 도라가니 천고우습 되거구나
 팔도하¹⁸⁾ 건너서니 연산관을 지너가니

12) 靑石關 : 개성 천마산 서쪽에 있는 關樓.
 13) 玉溜川 : 총수천(葱秀川)의 별칭. 총수는 평산도호부 북쪽 30리에 있고 총수천 옆의 대 위에 주지번이 새긴 '玉溜川' 세 글자와 그의 화상이 있음.
 14) 朱天使 : 宣祖 39년 명 황제의 칙사로 온 한림원 수찬 주지번(朱之蕃)을 말함.
 15) 栽松院 : 평안도(平安道) 용천군(龍川郡)의 남쪽 25리에 있음.
 16) 太師 : 유교 문화를 전해준 것으로 인식되는 기자(箕子)를 말함.
 17) 柵門 : 만주의 구련성과 봉황성 사이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상인들이 통상하던 곳.
 18) 八渡河 : 봉황성(鳳凰城)에서 80리, 책문에서 105리, 요녕성(遼寧省) 임강현(臨江

청석령 험한 길의 호풍은 무슨 일고
 효종디왕 일곡가¹⁹⁾는 천고열스 눈물이라
 고려충슈 묘전은 야화황접 어더런고
 요동야 칠빅니의 일월출을 다 보니다
 티즈하 건너가니 전로스양 무궁한다
 화포주학의 녀시 영위전신 되단말가²⁰⁾
 관니포 구절판은 왕양의 외도런가
 심양성 다다르니 고스가 시로와라
 조선관²¹⁾ 도라보니 희움 업시 눈물이요
 일구치전 어더런고 야판정이 간디업너
 슴학스²²⁾ 성인을 츠지의 일너시니
 여관한등 김흔 밤의 전전이 잠못인다
 신민둔 요히쳐는 몽고지져 막아잇고
 주류하²³⁾ 슬픈 바람 가렸흔 충훈열빅
 검슈도산 창막흔디 츠즐 곳이 바이 업다

①은 작품의 전반부로 중국의 경계를 넘기 이전에 촉발된 감회가 형상화되어 있다. 우선 서울에서 점차 멀어지지만 연군의 불변성을 확인함으로써 공간 이동과 정서를 교직시키는 기행가사의 미감이 확보되고 있다. 또한 ‘태백산성→옥류천→동선령→적병각’이라는 여정의 구조에 ‘다다르니’, ‘너머가니’ 등과 같은 동사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속도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주천사’와 ‘소동과’가 배치되어 단조로운 배열이 극

縣) 서북 혼하(渾河) 곁에 있는 강.

19) 다음의 시조(時調) 작품을 의미함. 청석령(靑石嶺) 지나거나 초하구(草河口) | 어드메오./ 호풍(胡風)도 차도 찰샤 구즌비는 무스 일고./ 아므나 행색(行色) 그러 내여 넘 계신 디 드리고자.

이와 관련하여 『도곡집』에서 ‘過草河溝有感. 敬翻孝廟詞曲. 續以歌’로 시작하는 시(詩)도 확인할 수 있다.

20) 丁令威: 한(漢)의 요녕인(遼寧人). 영허산(靈虛山)에서 선도(仙道)를 배워 학이 되어서 4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화표주(華表柱)에 앉았다는 고사의 주인공.

21) 朝鮮館: 병란 때 불모로 간 鳳林大君이 머물렀던 곳.

22) 三學士: 인조 병란 때 척화(斥和)하다가 청에 붙잡혀 살해된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를 지칭함.

23) 周流河: 심양성(瀋陽城) 서쪽에서 100리 지점에 있는 하천 이름.

복되었다. 그리고 기자의 고구림을 재확인 하는 모습에서 자국을 구심점으로 한 회고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②를 보면 책문에 도착한 후 ‘안시성’을 인식하고 살수대첩을 형상화한 부분이 확인된다. 수나라 군사들의 패배를 ‘천고우습 되거구나’로 표현함으로써 고구려 승리와 그 위엄의 현재적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가 수·당을 물리친 역사적 기억은 당시 연행사들의 정신적 위안처이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으로 표출되었음이 <임자연행별곡>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화자가 청석령을 지나면서 떠올린 ‘효종대왕의 일곡가’ 역시 ‘천고열사’의 눈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병자호란의 패배와 명·청 교체는 고구려를 계승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국제적 현실이었던 것이다. ‘조선관’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삼학사’에 대한 회고 역시 이러한 현실 인식과 그 감회의 지속적인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몽고’라는 夷狄으로 구획된 공간 앞에서 촉발된 감정적 진폭은 슬픈 바람만이 가득한 ‘주류하’와 ‘충혼열백’을 찾을 수 없는 무상함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의무려산’에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감회가 전체 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임자연행별곡>은 북방 고토에 대한 재인식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명분론적 시선이 여전히 지속되지만 17세기 중반의 <장유가>와 비교해 볼 때 자국 영토에 대한 환기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청나라 공간을 형상화하는 시선 역시 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나라 회복의 가능성이 약화된 상황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청나라의 구체적 문물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이 촉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이의현이 자신의 대청 체험을 한시로 문학화한 양상과 사행가사와의 상관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2 연경에 대한 관심의 촉발과 사실적 재현의 단초

주지하듯 연행은 공식적 외교를 위한 여정이었지만 쉽게 체험하기 어려운 타국으로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경험의 실질과 진폭이 개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촉발된 개인적 소회는 물론 경험 세계에 대한 적극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연행 문학이 형상화한 외연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특히 18세기 전반기의 경우 연행사와 통신사를 통해 활발한 문화 교류가 확장되던 시기라 연행 문학의 특성도 변모하게 되는데 ‘연행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의 『노가재연행일기』(1712)가 창작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가재연행일기』는 『죽천행록』에 이은 두 번째 한글 사행록으로 체계적 서술과 치밀한 기록으로 이후 연행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²⁴⁾ 특히 자아를 각성하고 조선 중심의 화이관이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전대에 비해 열린 세계 인식을 토대로 중국 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당대 지식인들의 세계관 변모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미²⁵⁾는 18세기 전기에 ‘농언그룹’²⁶⁾을 중심으로 한 三使臣(正使·副使·書狀官) 계층이 연행록을 연작적으로 창작한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이들은 산수유기의 적극적 창작을 통해 실제적 경험에 대한 관심과 흥취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고 이는 연행록의 서술 방식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여행의 기록’을 하려는 사적 표현 욕구가 발현되면서 연행록에도 일록이나 잡지 등과 같은 다양한 서술 방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농암의 제자인 이의현도 1720년, 1732년 두 번의 연행 이후 잡지 형태의 글을 남기고 있다는 점²⁷⁾에서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

24) 이후 시기에 창작된 한글 사행록 홍대용의 『을병연행록』과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 통시적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조규익, 「조선조 국문 사행록의 흐름」, 『국문사행록의 미학』(역락, 2004)

25)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혜안, 2007), 46~63쪽.

26) 洛論적 세계관을 지닌 형성기 경화사족인 六昌의 친족과 문인들에 대한 지칭.

27) 김현미는 위의 책에서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하권이 김창업의 『노가재 연행일기』와 같은 구성이며 노정과 풍물을 서술하는 방식에서도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의현이 노가재의 연행일기를 숙독하고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현미, 위의 책, 55~56쪽.

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도곡집』에는 연행시가 300여 수나 있으며 국내를 유람하면서 지은 기행시까지 모두 약 450여 수로 이는 전체 시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풍경과 풍속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사실적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²⁸⁾

이처럼 이의현의 시는 일상의 견문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기술하는 장편 시나 연작시가 많은데 특히 연행 체험에 대한 연작시가 많다는 점이 다른 문인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다.²⁹⁾ 칠언절구 연작 10수의 <遼東雜詠>, 연작 20수의 <燕中詠物俚言>, 5언 12운 연작 20수의 <入燕都, 處乾魚衙衙>, 7언 6구 50수의 연작시 <紀行述懷 次三淵韻>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연경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발견한 문물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임자연행별곡>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도 상관성이 있어 흥미롭다. <임자연행별곡>은 前代의 작품들에서 주로 보이는 공식적 여정과 명분론적 감회의 표출을 지양하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과 사적 감흥을 기반으로 작품을 창작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관련된 주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홍노연예와 오문지영을 차례로 지는후의
산천형승과 성궐제동을 넉넉히 슬퍼보니
순천부³⁰⁾ 덕도회의 풍기도 다를시고
영낙년³¹⁾ 티핑시의 경눈도 장홀시고

28)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한국문화사, 2004), 171~178쪽.

29) 장유승, 「도곡 이의현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 31(한국한시학회, 2009), 301~302쪽.

30) 順天府 : 명(明)나라 초기에 북경(北京) 일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관부. 태종 영락제(永樂帝)는 이때 순천부를 북경으로 삼아 서울을 금릉(金陵)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유명한 자금성(紫錦城)을 축조하였음.

31) 永樂帝 : 명나라 제3대 황제(재위 1402~1424). 지방의 번왕(蕃王)으로 연왕(燕王) 불렸으며 건문제가 공격해오자 난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다. 영락제는 환관 정화(鄭和)로 하여금 대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 해안까지 7회에 걸친 대원정군을 보내어 명나라를 해외에 과시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를 일본국왕에 봉하여 왜구를 누르고, 감함무역

덩양문³²⁾ 너른 길의 오국습초 돌너잇고
 툃화전³³⁾ 놓흔 집의 만호전문 열너서라
 경산³⁴⁾ 화목이 울울 총총흔디
 즈광각³⁵⁾ 만세루는 반공의 소스잇고
 오룡청³⁶⁾ 천불스³⁷⁾는 경중의 즈겨서라
 동옥동 서금오는 이경기를 볼작시면
 냥가화각 천중귀³⁸⁾요 한제금경 운의직³⁹⁾을
 문창일누는 삼광이 어레잇고
 석고십미⁴⁰⁾는 만고의 유전이라

②

법장탑⁴¹⁾ 올라보니 동스제명⁴²⁾ 넉넉하디
 노구효월이요 연디석조⁴³⁾로다
 황성⁴⁴⁾도 조커이와 희전⁴⁵⁾을 보리로다
 서화문 너다라셔 툃중사 즈간 보고

(勸合貿易)의 길을 연 것도 그의 시대였다. 내정면에서는 문화정책에 힘을 기울여 2만여 권에 이르는 일대유서(一大類書) 《영락대전(永樂大典)》(1408) 외에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편찬시켜, 주자학의 국가교학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 32) 正陽門 : 북경(北京) 내성(內城) 구문(九門) 중 남면(南面)한 중앙문.
 33) 太和殿 : 북경(北京) 내성(內城) 황성(皇城) 안에 있는 중화(中華)에 군림(君臨)한 천자(天子)의 정전(正殿)
 34) 景山 : 북경(北京) 자금성(紫禁城)의 북쪽에 있는 산. 만민경구(萬民景邱)의 뜻.
 35) 紫光閣 : 북경(北京)의 서원(西苑) 안의 태액지(太液池) 서안(西岸)에 있는 누각.
 36) 五龍亭 : 태액지(太液池) 서안(西岸)에 있는 정자.
 37) 千佛寺 : 호국사(護國寺)라고도 하며 천불(千佛)을 봉안하였음.
 38) 梁家畫閣天中起 : 노조린(盧照隣)의 장안고의(長安古意)에 있는 말.
 39) 漢帝金莖雲懿直 으로 추정됨.
 40) 石鼓 : 주선왕(周宣王) 때 만든 북 모양의 돌로서 열 개가 북경 국자감(國子監) 대성문 좌우에 있음.
 41) 法藏塔 : 승문문 밖에 위치한 탑.
 42) 東使題名
 43) 蘆溝曉月 (노구의 새벽달) · 금대석조(金臺夕照 금대의 석양 빛)은 皇都八景에 속함.
 44) 皇城 : 자금성(紫禁城)과 왕푸정(王府井)의 부상계(步行街) 사이에 위치한다. 베이징성(北京城)은 자금성(紫禁城), 황성(皇城), 와이청(外城)의 3부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45) 海甸 : 해변의 마을. 여기서는 북경 서북쪽 이화원 가는 길에 있는 지명을 말한다.

업슈동문 휘여드러 곤명지⁴⁶⁾ 다다르니
 거와요초 김흔 곳의 별유천지 여기로다
 옥천스 저녁 쇠북 풍편의 들니는듯
 슈기고 올라보니 옥야천니 열녀고다
 석경 어딤 가고 동아가 누어고나⁴⁷⁾
 십철교 도라드니러 동경유 상쾌홀시고
 덩국의 착거⁴⁸⁾런가 니빙의 잇슈⁴⁹⁾런냐
 천부금탕을 관중분 일너지나⁵⁰⁾

①을 보면 산천과 성곽의 주요 지명과 경치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 출발점이 넉넉히 ‘살피보니’로 시작하는 것이 흥미롭다. 간략하지만 외적 문물에 대한 ‘관찰’의 시선이 작동하여 자금성 주변의 경치가 유사한 통사구조 속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도호 풍속이 조선과 ‘다르다’는 구절은 자국과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북경 내의 구체적 문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러한 번성의 기반을 명나라 영락제의 경륜으로 규정함으로써 명분론적 의식은 지속되고 있지만 청나라의 구체적 문물이 그 의식을 압도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②에서도 법장탑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황성에 긍정적 관심을 표명하는 화자를 발견할 수 있다. 명분론에 기반한 심적 무게가 감소함으로써 상대

46) 昆明池 : 중국(中國) 한(漢)나라의 무제가 수군(水軍)을 훈련(訓練)하기 위하여 장안성 서쪽에 판 못. 청나라 水軍이 훈련받던 곳이기도 하다.

47) 한무제(漢武帝)가 곤명(昆明)을 치기 위하여 수전(水戰)을 연습시키려고 장안(長安)에 곤명지란 큰 못을 파고 거기에 돌고래(石鯨)를 만들어 두었음. 이후 돌고래가 동우(銅牛)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듯함.

48) 춘추 시대에 한(韓)나라에서는 진(秦)나라의 국력을 꺾어 하려고 수공(水工)인 정국을 간첩으로 진에 보내어 진왕을 달래어 중산(中山)에서 과구(瓠口)까지 이르는 거(渠)를 만들게 했다. 그 뒤 진에서는 그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 하였으나 거를 만드는 것이 진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국을 죽이지 않고 거를 완성하게 하였다. 진은 이 거로 인하여 관내(關內) 지방이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정국거라 이름하였음.

49) 진나라 이빙(李冰)이 촉거(蜀渠)를 개통한 일을 의미하는 듯함.

50) 天府金湯 :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라 관중의 계책으로도 공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듯함.

적으로 부각된 ‘유람’과 ‘관찰’의 시선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더욱이 곤명지에서는 그 곳을 ‘별유천지’로 인식할 만큼 촉발된 감흥이 상당히 하여 쇠북 소리가 바람에 혼효되어 흩날리는 감각적 심상으로 전이되어 표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명과 관련된 고사로 인해 문학적 감흥이 배가되고 있으며 ‘천부금당’은 연경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압축된 어휘이다. 지리적 위치는 물론 발달한 문물을 보면 관중의 계책이 무력할 정도로 훌륭한 곳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과 그 문학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의현의 한시와 <임자연행별곡>은 인식 기저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자연행별곡>은 출발과 회정이라는 기행의 구조 속에 인상적인 장면들을 서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완결된 문학 작품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정된 율격을 기반으로 한 국문시가의 형식을 활용한 점도歌唱의 측면과 관련된 중요한 변별 지점이다. 내용의 구체적 차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감정의 표출 정도에서 한시보다 <임자연행별곡>이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이의현이 한시 작품들과 다른 층위에서 사행가사를 창작하게 된 동인은 무엇일까. 관련 기록의 부재로 직접적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

내가 과거에 급제한지 50년 가까이 되었다. 영욕을 두루 경험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전국의 곳곳은 물론 외국으로 두 번 사행을 나가 먼 변방까지 보았다. 이제 일흔이 되었는데 늙고 병들어 기력도 없고 사망으로 다닐 큰 뜻도 지치고 말았다. 예전에 다니던 일을 생각해보면 아득히 먼 옛날 일만 같다. 감개를 이기지 못하여 장가(長歌)로 생각을 펼쳐 놓으니 시어는 볼 만한 것이 없고 무묘한 가운데 붓을 놀린 것에 불과하다.⁵¹⁾

51) 『陶谷集』 卷4, 「感舊遊篇」, “余釋褐近五十年。備經榮辱。東西遊走。迹遍湖海關嶺。以至再使異域。對鵬遐塞。今年滿七十。老病無氣力。四方之志已倦。追思舊遊。茫如隔世事。不勝感慨之懷。輒以長歌紓其思。詩語無可觀。不過無聊中弄翰而已。”

이 부분은 만년에 이의현이 지난 여행 체험을 회고하면서 지은 칠언고시 연작 8수 <感舊遊篇>의 전반부 기록이다. 인용된 부분을 보면 나이가 들어 평생 동안 지속된 여행과 사행의 체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북받치는 감회를 長歌로 형상화했음이 확인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색한 기억의 편린들을 되살려 무상감에 젖은 노년의 정서를 위안하고자 연행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17세기 중반에 호곡 남용익(南龍翼, 1623~1692)은 사행 후 창작한 <장유가>를 취흥의 현장에서 향유하며 지난 체험을 반추했음이 확인된다.⁵²⁾ 따라서 이의현도 이러한 사대부들의 문학적 관습을 기반으로 가사를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자연행별곡>의 서두에 있는 ‘어와 벗님네야 이너 말삼 드러보소/ 청춘이 어제 러니 빅발로 덧업도다’ 라는 구절을 보아도 노년의 시기에 촉발된 무상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자연행별곡>이 창작된 18세기 전반기 까지도 사적인 영역에서 회고적 감흥을 표출하고 정서를 高揚하는 것이 사행가사의 문학적 효용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의현의 국문관을 토대로 작품의 창작 맥락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한 후, 동일한 체험에 대한 공식적 기록인 <壬子燕行雜識>와의 비교를 통해 사행가사의 문학적 특질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다.

3. 이의현의 국문 인식과 <임자연행별곡>의 문학적 특질

3.1 국문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과 전이한 문학의 지향

이의현의 문예관은 「雲陽漫錄」⁵³⁾과 「陶峽叢說」⁵⁴⁾을 통해 주로 논의되

52) 김윤희, 「<장유가>의 표현 양상과 공간관을 통해 본 17세기 사행가사의 특징」,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76~77쪽.

53) 『도곡집』 권27의 雜著로 실려있으며 辛壬土禍로 인해 1722년부터 3년간 지속된 유배생활 가운데 창작되었다. 문학과 身邊雜事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54) 『도곡집』 권28의 雜著로 실려있으며 1727년 丁未換局으로 인해 소론에 패배하여 陶山村舍에 퇴거하여 창작된 글이다. 詩文에 대한 비평과 經書와 諸子書에 대한 평

는데 최근 민복기⁵⁵⁾는 이의현이 명대 의고파를 부정하며 당대 글쓰기에 있어 유가 이념의 부재와 字句 위주의 修辭, 물개성화 등에 대해 비판했음을 지적하였다. ‘復古’와 ‘個性’을 강조하며 전범의 테두리 안에서 글을 쓰되 작가의 개성을 살려 진실한 내면을 표출해야 함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현은 서인 노론계의 일원으로서 주자학을 신봉한 관각문인임에도 불구하고 老莊이나 諸子를 애호하는 등 우암 송시열이나 택당 이식 등이 보여준 경직성을 탈피하고 상당히 진보적 비평의식을 견지했음이 확인된다.⁵⁶⁾ 이러한 이의현의 문예관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국문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이의현은 앞서 언급했듯 농암의 제자로 유년 시절 옥소인 玉所 권섭(權燮, 1671~1721) 함께 修學했음이 확인된다. 주지하듯 권섭은 시조 75수와 가사 2편을 남긴 작가로서 국문시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물론 인간의 삶과 내면에 대한 포용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⁵⁷⁾ 또한 이의현과 권섭의 스승이었던 김창협은 천기와 참된 성정의 표출로써 자국어 시가의 의의를 언급한 바 있다.⁵⁸⁾

이처럼 이의현은 동시대 다른 문인들에 비해 폭넓고 유연한 문예관을 지닌 동시에 그의 학맥으로 보아도 <임자연행별곡>이 창작된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의현의 국문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에 참조가 될 만한 자료로 보인다.

론 등이 들어있다.

55) 민복기,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동양한문학연구』 25 (동양한문학회, 2007).

56)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 문장론 소고」, 『한문학논집』 17 (근역한문학회, 1999), 152~153쪽.

57) 근래의 권섭 연구는 공저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에 망라되어 있다.

58) 『農巖集』 권20, 「與趙成卿」, “詩歌之道。與文章異者。正以其多道 虛景。多道閒事。而古人之妙。却多在此。蓋雖曰虛景閒事。而天機活潑之妙。吾人性情之真。實寓於其間。使人讀之。足以謳歌吟諷。感發興起。而得之於言意之表。此其妙。豈數陳事理。排比故實。以爲詩者之所能及耶。”

여항 간의 속된 말들은 부녀자와 하천민들이 평상시 입에 올리는 것이다. 그 출처를 살펴보면 간혹 지극히 예스러운데 잠시 그 중 한두 가지를 말해보겠다. 進退維谷과 罔極, 奔走라는 말은 『詩經』에 나오고 罔晝夜, 明若觀火는 『書經』의 말이다 …(중략) 物故, 身死는 『漢書』의 말이다. 이 문자들은 비속한 듯 하나 실제로 雅하니 비록 옛 文辭라 할지라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지 그것을 사용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이다.⁵⁹⁾

위의 인용문을 보면 여항에서 쓰이는 俗語에 대해 이의현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어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비속해 보이지만 그 출처를 살펴보면 『詩經』, 『書經』 등과 같은 경서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典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俗語라고 할지라도 ‘古雅’함이 전제된 것이라면 충분히 그 사용을 긍정할 수 있음이 주된 논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문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전아함을 강조하는 이의현의 문예관은 <임자연행별곡>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17세기 사행가사에서 확인되는 공간 인식이 명분론으로 대표되는 시대적 이데올로기로 수렴되었던 반면 <임자연행별곡>에서는 고사나 문학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형상화 과정에 인식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부분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①

장성일변 용용슈요 디야동두 점점산은
연광정⁶⁰⁾ 늑흔 집의 김황원이 읍혀 잇고⁶¹⁾

59) 『陶谷集』 卷27, 『雲陽漫錄』, “閭巷間俚語鄙諺。婦女下賤。尋常騰口者。考其出處。間有極古者。姑以其一二言之。進退維谷, 罔極奔走。詩經也。罔晝夜, 明若觀火。書經也。積善積不善, 趙趙變通。周易也。幼學, 進士, 大司成, 推移, 不共戴天之讐, 大殺之年。禮記也。血氣未定。論語也。五十步, 百步, 不似, 巨擘, 絕長補短。孟子也。周旋, 遷延。左傳也。支離, 神奇, 陳蔡之患。莊子也。昌披楚辭也。怨入骨髓, 一敗塗地。史記也。物故, 身死。漢書也。此等文字。似俚而實雅。雖於古文辭。無不可用之理。顧在用之之如何耳。”

60) 練光亭 : 평양의 대동강가에 위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져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간주됨. 남쪽 누각 기둥에는 고려 때 시인 김황원의 시구를 적은 현판이 걸려 있음.

61)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은 고려의 문신 및 시인이다. 자는 천민이고 본관은

송군납포동비기⁶²)는 놀을 위하여 지었는데
 망민인혜 텃일방⁶³)은 날도 두고 일너도다

②

무령현 숙소하고 영평부⁶⁴) 츠즈가니
 창창흔 초즙석은 니장군⁶⁵)의 즈최러가
 고죽군⁶⁶) 이즈묘는 빅세청풍⁶⁷) 기록하다
 등피서산⁶⁸)혀여 탄식고 도리나니
 진즈점 놓흔 벽에 계문란의 슬픈 글더
 통쇄춘풍 상심양⁶⁹)은 이제까지 일녃잇고

광양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고시에 이름을 날려 해동의 제일인자라 일컬어 졌다. 한림원에 있을 때 요의 사신을 시로써 맞아 존경을 받았으며, 예종 때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서 요나라에 가는 길에 대기근을 당한 북부 지방에서 주군(州郡)의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했다. 귀국 후, 예부 시랑(禮部侍郎)·첨서주밀원사(簽書樞密院事)를 역임하고,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일찍이 평양 부벽루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고 시를 짓다가 두 줄만 짓고 나머지는 표현하지 못해서 울고 내려왔다는 일화가 있다. "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긴 성 한 쪽을 끼고 넓은 물이 질펀하게 흘러가고, 너른 벌 동쪽 가엔, 점점이 산이더러)"는 그때 지은 시라고 한다. 그는 문장에서 정지상(鄭知常) 이전의 제1인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62)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을 의미함. 雨歌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63) 望美人兮天一方 : 송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있는 구절로 임금을 그리니 간절한 심정을 말함.
- 64) 永平府 : 난하 하류 갈석 부근에 있다. 난하 하류는 고조선 및 진시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으로, 명나라 시대 '대명일통지'라는 책에는 "난하 하류에 영평부가 있고, 그곳에는 기자가 정착했다는 조선성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
- 65) 한(漢)나라 명장 이광(李廣)이 우북평 태수(右北平太守)로 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보고 활을 쏘아 적중시켰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큰 바윗돌 속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우북평은 바로 영평부(永平府)이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에 기록되어 있음.
- 66) 孤竹君 : 백이숙제의 부친.
- 67) 百代清風 : 오랜 세월 전해지는 충절의 기풍. 이제묘 담의 좌우에 편액되어 있음.
- 68) 주 무왕이 은 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주 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음에 임박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저 서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도다. 폭력으로 폭력과 바꾸면서 자기의 그릇됨을 모르도다. 신농과 우순과 하우가 이제 없으니 나는 어디로 돌아갈지나(登彼西山兮 採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虞夏罔焉沒兮 我安適歸矣)." 한 구절임.

③

연교보 말마하고 통주강⁷⁰⁾ 도라드니
 알디 장강이 호호 탕탕헌디
 만상희⁷¹⁾ 고피는 곳의 청작황룡⁷²⁾ 장홀시고
 춘풍의도 함녀성⁷³⁾은 괴들 아니 조홀소냐
 풍염슈막 늙흔 집의 비파 튼는 저 개인아
 장주사마⁷⁴⁾ 어디 가고 홀노 안져 노닌고

①을 보면 고려시대의 문인인 김황원과 정지상, 그리고 소동파의 시구가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광정과 대동강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유명한 시구를 통해 촉발된 감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②에서도 이체묘에서의 감흥을 ‘등피서산’이라는 <採薇歌>의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 진자점(榛子店)에서는 청나라에 잡혀 가는 안타까운 심정을 그린 계문란(季文蘭)의 시구를 인용함으로써 ‘탄식’과 ‘슬픔’의 정서를 연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에는 계문란의 시구가 塗壁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⁷⁵⁾ 즉 실제로 이의현이 보지 못한 계문란의 시가

69) 명 나라 말년에 강남 여자 계문란(季文蘭)이 청인(淸人)에게 사로잡혀 심양으로 행할 때, 이곳 가게에 시를 지어 벽 위에 썼는데 그 시의 일부 구절이다. “퇴계 속 절없이 옛날 단장을 여여빠 여겼으니 길의 치마 월 나라 김치마를 바꾸었다 하였도다 아버와 어미 생사를 어느 곳에 알꼬 봄바람에 심양으로 올라감을 슬퍼하노라 (椎髻空憐昔日粧 征裙換着越羅裳 兪孃生死知何處 痛殺春風上瀋陽)

70) 通州江 : 백하(白河), 강이 통주의 東城을 싸고 돌아 북으로 흘러 西山에 이른다.

71) ‘蠻商海’로 추정됨.

72) 고피는 ‘꽃배’를 의미하는 듯하다. 꽃배는 화방(畫舫)의 이름으로, 예전에 귀인(貴人)이 타던 놀잇배의 일종이며,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가함미진 청작 황룡지축(舸艦迷津青雀黃龍之軸)’이라 하였다. 곧 놀잇배의 깃발에 푸른 새와 누런 용을 그려 넣은 데서 ‘놀잇배’의 뜻으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왕발의 작품은 『古文眞寶』에 수록되어 있다.

73) 萬竹 서익(徐益, 1542~1587)이 지은 <春風倚棹闔閩城>을 의미하는 듯함. 함려성(閩閩城)은 소주(蘇州)의 별칭이며 ‘함려’는 춘추시대의 오왕으로 소주의 虎丘에 묻혔다고 전해진다.

74) 白居易(772~846)의 <琵琶行>과 연관된 내용.

75) <庚子燕行雜識>는 이의현의 첫 번째 연행(1720)에 대한 공식 기록이다.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진자점(榛子店)에 이르러 한인(漢人) 진기(陳琪)의

<임자연행별곡>에서는 ‘슬픈 글디’가 ‘이제가지’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서적 환기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한 의도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가사 작품에서 연행의 기억이 형상화되는 경우 사실의 층위보다 문학적 전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영역을 중시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통주강의 풍경을 재현하는 방식도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③을 보면 강 위의 놀잇배들이 ‘청작황룡’이라는 왕발(王勃)의 글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감흥은 서익(徐益)의 시를 연상함으로써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포착된 장면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세밀한 묘사보다는 인상적인 국면들에 대한 회상이 <임자연행별곡>의 주된 형상화 방식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繡幕이 드리운 높은 집 안에서 비파가 연주되는 풍경을 <비파행>과 연결함으로써 문학적 감흥이 배가되고 있다. 비파를 연주하는 이와 <비파행>에 형상화된 여인을 병치하여 기억 속의 그 장면이 유발하는 정서적 공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장주사마 어딤 가고 홀노 안져 노니는고’라는 구절에는 쓸쓸함과 무상감의 정서가 녹아있으며 이는 곧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당시에 비파 소리를 직접 들었다면 그 기억에 대한 환기를 선명하게 하는 감각적 매개체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파행>은 그 장면에 대한 심미적 동화를 가능케 하는 작품이었을 것이며, 뛰어난 문학 작품의 미감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임자연행별곡>에는 문학적 典據뿐만 아니라 관련 고사도 지속

길에서 《식암집(息庵集) 김석주(金錫胄)의 문집》을 보았다. 이곳에 강우(江右) 여자 계문란(季文蘭)이 벽 위에 쓴 시가 있다고 하나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에 수재(秀才)들이 혹 알 수도 있겠다 싶어 주인으로 하여금 수재 하나를 부르게 했다. 마탁(馬卓)이라는 자였는데 물어도 모른다고 한다. 계속하여 두어 마디 주고받다가 우리의 의관이 어떤가를 물어보았더니, 무척 부끄러워하는 빛으로 글로 써서 보이기를, “우리들도 일찍이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들은 시세(時勢)를 따를 뿐입니다.” 한다. 한 사람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의 시가 전에는 있었는데 5, 6년 전에 그 벽을 다시 발랐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작품 전반에서 확인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관련 고사의 경우 다른 사행가사 작품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문학적 시구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임자연행별곡>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임자연행별곡>에서 문학적 전거는 여정의 객관적 나열이 초래할 수 있는 심미적 환기의 단절을 방지하고 문학적 감흥을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 기반이 유사한 이들이 작품을 향유할 경우 문학적 전거를 통해 실제적 여정을 추체험 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진폭이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풍경에 대한 심미적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행가사와 달리 ‘타국’ 체험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행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술적 특징이 부각될 수 있다. <임자연행별곡>에서 문학적 전거의 활용은 이러한 교술성을 극복케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명과 풍경을 객관적으로 나열하는 구조가 관련된 고사나 시구를 통해 유연하게 확장되어 暗誦과 歌唱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漢魏古詩를 시의 전범으로 규정하고 비평과 창작을 지속한 이의현의 기본적 문예관은 물론 里彦일지라도 典雅함이 전제된다면 그 쓰임을 긍정한 그의 국문 인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임자연행별곡>을 통해 사대부들이 국문시가를 실천적으로 활용, 창작하는 과정에서 타국으로의 여행이 촉발한 감회가 주요한 소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유연한 시선과 사적 층위에 기반한 형상화

지금까지 이의현의 시대 인식과 문예관을 통해 작품의 창작 맥락을 탐사하고 그것을 작품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동일한 체험에 대한 공식적 기록인 <壬子燕行雜識>와의 비교를 통해 사행가사로서 <임자연행별곡>이 담당했던 문학적 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壬子燕行雜識>의 전반부는 燕行使가 구성된 정치적 배경과 이의현이 사은사의 명을 받게 된 계기가 상술되어 있다. 이어 小黒山, 三十山 근처에 투숙하면서 그 곳의 사람들과 나눈 필담, 貞女祠, 夷齊廟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객관적 문체로 진행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임자연행별곡>과 확연하게 변별되는 지점이다. 속도감 있는 여정의 구성 속에 개인적 층위에서의 자긍심과 연군 의식, 북방 고토에 대한 회고 등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 교직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행가사의 문학적 특질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어 서술되는 北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구성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우선 <壬子燕行雜識>에서 이의현은 通州에서 北京에 이르는 길이 벽돌로 포장된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한다. 청나라 황제의 사치와 가렴주구를 지적하며 변화하는 북경의 외관을 ‘괴상하고’ ‘가소롭다’고 인식하는 것이다.⁷⁶⁾ 이어 天主堂과 서양인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서양의 道에 대한 반감은 있으나 문물이나 인종은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는 山東地方에서 麒麟이 탄생한 것과 관련하여 山東御使가 禮部에 보내는 咨文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상서로운 기린의 외형에 대한 묘사는 물론 四海와 萬古에 天德이 미칠 수 있는 盛世의 징조임을 강조하는 이 글에 대해 이의현은 다음과 같은 반감을 보인다.

기린이란 것은 성왕(聖王)의 시대라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데, 더구나 피비린내 나는 이 마당에 어찌 나타나겠는가? 또 소가 이런 것을 낳는 것은 하나의 요망한 재앙이며, 또 누가 그것이 기린임을 알아본단 말인가? 망녕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꾸며서 지극히 아양을 부리는 것이다. 신하의 아첨이 이와 같으니, 그 임금의 몽매함과 교만함을 가히 알 만하다. 이와 같은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으랴?⁷⁷⁾

76) 『陶谷集』 卷30, 「壬子燕行雜識」, “自通州至北京道路鋪礮石。至北京內城外而止。費爲累鉅萬。自十餘年始爲之云。又道路左右。列植楊柳。此近來所始云。聞此國所謂陵墓俱在薊州。其鋪石於路者。爲胡皇省掃時侈觀。擬自薊州連絡北京。而力姑不贍。止於通州。而前頭又當自通州至薊州而止云。自古帝王遊幸之所。未聞有鋪石之事。而今乃創爲作此無益之浮文。耗財病民。不遺餘力。良可怪也。其種柳則豈出於倣隋家耶。隋則以姓楊之故。欲爲厭勝之計。姓趙而種柳。有何意謂耶。尤可笑。”

77) 『陶谷集』 卷30, 「壬子燕行雜識」, “麟也聖王之時。亦不常有。況此腥穢之場。豈肯現出。且牛而產此。乃一妖災。又孰知其爲麟哉。妄飾奇跡。極意媚悅。臣下之諛佞若此。其君之昏驕可知。如是而國安得不亡。”

이 부분을 보면 청나라를 ‘피비린내’ 나는 夷狄의 국가로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기린의 탄생을 오히려 ‘망녕되고 기이한’ 것으로 보는 이의현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청나라가 기린의 탄생을 통해 사해를 통치하는 국가로서의 위엄과 신성성을 조선의 사신에게 표명하려 한 것이라면 이의현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간신배의 아침과 임금의 몽매함을 통해 통치 질서의 혼란을 지적한 것은 청을 유교적 군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청나라의 파멸은 예견된 것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타자 인식’은 조선의 유교적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자아 인식’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北道 지방에서 열리는 시장이 폐단이 많아 폐지를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현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 咨文을 다시 보내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 구성은 앞서 살펴본 <임자연행별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임자연행별곡>에서 화자는 청나라의 번영과 그 문물에 대해 관심을 보여 전대의 사행가사 작품들에 비해 개별화된 시선과 구체적 어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 기록에서는 조선의 사신으로서 청나라와의 대등한 외교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과 사례들 위주로 구성되었음이 <壬子燕行雜識>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사행가사가 공식적 기록이 확보할 수 없는 사적 감흥과 주관적 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학 작품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壬子燕行雜識>의 후반부는回程 길에 투숙하게 된 곳의 谷礪이라는 이와와 일화로 구성되는데 이 역시 조선이 유일한 중화 계승국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당시 숙박을 업으로 삼는 청나라인들은 조선을 중화국으로 존송하며 사신들을 대접하는 예가 형식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의현은 굳이 ‘의관’에 대한 질문을 유도한 후 ‘우리 의관은 곧 기자의 옛 의관이니, 이것은 바로 옛 중화의 예복입니다’라는 대답을 통해 중화국으로서의 조선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정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구입한 서적들에 대한 나열로 <壬子燕行雜識>는 마무리된다. 이러한 후반부의 구성 역시 <임자연행별곡>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저렇 다 지너서 칙문을 다다르니
 고국강산이 의구이 갓갓도다
 압록강아 잘있더냐 빅마산도 박가와라
 싱입옥문관⁷⁸⁾을 옛말노 드렀더니
 각망병주 시고향⁷⁹⁾을 일노두고 이름이라
 님셔각 말근 밤의 몽스도 조홀시고
 각국이 더평하고 풍성이 양양하니
 천상신식이 즐겁기도 그지업다
 만세종남산⁸⁰⁾은 날을 보고 밧기논듯
 일딴강슈는 은과가 호탕하다
 귀거릭 귀거릭 혀여 가영성틱 호오리라.

이 부분은 <임자연행별곡>의 후반부로 귀국 과정에서의 감격적 정회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압록강과 백마산에 대한 의인화와 대구법은 당시의 감흥에 대한 생동감 있는 재현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싱입옥문관’과 ‘각망병주시고향’이라는 문학적 典據 역시 감흥의 진폭을 확장하는 修辭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천상신식이 즐겁기도 그지업다’는 연행 체험을 회상하는 화자의 의식이 수렴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천상신식’은 경험의 외연이 초월·확장되며 발생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가시적 문물의 ‘새로움’에 대한 감탄이 응집된 어구인 것이다. 이러한 특질은 중화국의 사신으로서 권위와 자부심을 강조한 <壬子燕行雜識>의 후반부와 명료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타국을 체험하는 한 개인의 의식은 공식적 외교의 주체라 할지라도 단일한 이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 경험의 진폭과 감

78) 《후한서(後漢書)》 반초전(班超傳)에 “臣不敢望到酒泉郡 願生入玉門關”이 있음.
 79)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도상건(渡桑乾)>에 “병주의 나그네살이 십 년이 지나도록, 밤낮으로 고향 함양에 돌아가고팠어라. 무단히 다시금 상건수 물을 건너니, 돌아보매 병주가 바로 고향처럼 느껴지더라. (客舍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却望并州是故鄉)” 한 데에서 유래한다.
 80) 終南山 :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으로 진(秦)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을 기린 시(詩)임. 실제로는 당나라 서울인 장안(長安) 근방에 있던 산 이름.

정적 혼돈이 내재해 있었을 것이다. 사행가사는 그러한 사적 층위의 내면이 완결된 구조 속에 표상된 문학 작품으로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歌詠聖澤’이라는 작품의 결사구를 통해 볼 때 이 시기까지 사행가사는 ‘歌’의 영역에 기반한 문학으로 창작·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¹⁾ 그러므로 인식의 직접성과 내면의 ‘표출’이 더욱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식적 기록에 비해 <임자연행별곡>은 시선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사적 층위의 경험과 공간 인식을 토대로 구성된 가사 작품임을 알 수 있다.

4. 18세기 초 사행가사로서의 특징과 그 의의

지금까지 18세기 초반 사행가사인 <임자연행별곡>에 투영된 시대 인식과 문학적 특질의 주요 지점들을 통해 작품의 정체를 탐색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사행가사의 주요 흐름 속에 배치해 봄으로써 그 시가사적 위상을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에 창작된 대청 사행가사 작품들은 남용익(南龍翼, 1623~1692)의 <장유가>(1666), 유명천(柳命天, 1633~1705)의 <연행별곡>(1694), 박권(朴權, 1658~1715)의 <서정별곡(西征別曲)>(1695)⁸²⁾이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창작된 대청 사행가사는 김

81)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사행가사인 <서정별곡>(1695)의 필사기를 주목할 만하다. ‘미거흔 글씨로 일필의 뼈너니 글씨도 만니 외고 추술흥미 가이업다 그 글이나 글시 불 것 아니라 이 별곡의 내 집의 귀한 것이니 보나니들이 상히 오디 말고 보옵’이라는 필사기의 일부를 보아도 작품이 暗誦과 別曲의 특성을 전제로 향유·전파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1783년으로 추정된다.

82) 17세기 중반의 <장유가>와 달리 17세기 후반 작품인 <연행별곡>, <서정별곡>은 시대 인식 및 문학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연행별곡>과 <서정별곡> 역시 차이점이 있으며 <서정별곡>의 경우 시대 인식의 측면에서 <임자연행별곡>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임자연행별곡>의 주요 특질에 대한 분석이 주목적이므로 여타 작품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지수(金芝叟, 1787~?)의 <서행록(西行錄)>(1828), 홍순학(洪淳學, 1842~1892)의 <병인연행가(丙寅燕行歌)>(1866), 유인목(柳寅睦, 1839~1900)의 <북행가(北行歌)>(1866)가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17세기 중반의 작품인 <장유가>와 19세기 초의 작품인 <무자서행록>과의 비교를 통해⁸³⁾ 18세기 초반 사행가사로서 <임자연행별곡>의 주요한 문학적 특질과 그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장유가>의 경우 연행의 공간을 회상하며 문학화 하는 과정에서 명분론에 기반한 심적 무계와 한탄이 확연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⁸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沙河堡 지난후의 간디마도 戰場이라
 崩城 敗壁은 본디마도 悽愴호고
 白草 黃河는 마이없이 蕭條호다
 十里 五리에 烟臺 버리시니
 防備는 이리호되 어이호여 못직히고
 牛家莊⁸⁵⁾ 호로목어 夫馬을 點送호고
 三叉河⁸⁶⁾ 비로건너 瀋陽을 저만보고
 高平 盤山의 괴로움도 마이업다
 슬폴샤 廣寧衛⁸⁷⁾여 兵火의 蕩敗호되
 …(중략)
 大凌河 小凌河의 춘물결 슬피운다
 洪承疇⁸⁸⁾ 降虜는 닐너 쓸디 업거니와

83) 이 두 작품은 시대 인식과 문학적 특질에서 대표성이 있으며 <임자연행별곡>의 시기적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 선택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의 비교는 개략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며 보다 정치한 비교 및 여타 작품들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84)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 풍경』(소명출판, 2005)

85) 驛의 이름이며 해주위(海州衛) 서남쪽 60리에 있다.

86) 遼河의 별칭.

87) 중국 요녕성 북진현에 있었던 지명. 명나라 때 군사요충지였다.

88) 洪承疇 : 명말의 장수. 계요총독(薊遼總督)으로 1642년 청군을 금주위(錦州衛) 가까이 있는 송산(松山)에서 방어하다가 청군에게 보급선을 끊겨 지탱하지 못해 항복하고 말았다.

錦州衛 役事는至今의 목이벤다

인용된 부분을 보면 중국의 공간에 대해 ‘戰場이라’, ‘棲愴하고’, ‘蕭條하다’, ‘괴로움도 마이업다’ 등의 어휘들을 통해 탄식과 슬픔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청이 교체된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조선 지식인들에게 중국 체험은 비극을 환기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동했던 것이다. ‘大凌河 小凌河의 찬 물결이 슬피 우는 것 같다’라는 감정 이입과 ‘錦州衛 役事를 보고 목이 메어 하는’ 표현 역시 관념적인 명분론이 공간 인식의 주요 기제가 되었음을 확인케 한다. 이처럼 <장유가>에서 연행 체험을 형상화하는 양상이 명의 멸망에 대한 ‘한탄’의 정서로 수렴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임자연행별곡>과 확연히 변별되는 지점이다. <임자연행별곡>의 경우 자국의 북방 고토에 대한 회고와 청나라 문물에 대한 관심이 공간 인식의 주요 특징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한·중 관계의 안정에 따른 조선의 대외 인식 변화와 상관성이 있다. 17세기 말을 기점으로 청나라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문물을 개방하며 조선과의 문화적 교류와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현실적으로 ‘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정세를 자각하게 되었고, 명분론에 기반한 중화 의식보다 조선을 중화로 설정하는 구도로 대외 인식이 조정된다. 그러므로 18세기 초에 창작된 <임자연행별곡>의 경우 <장유가>에 비해 자국의 영토 인식이 부각되고 중국의 공간도 관념적 층위보다는 구체적 관찰의 시각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작품은 내적 구조와 분량, 창작 및 향유의 맥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사한 측면들도 확인된다. 자기 완결적 독백과 간략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서정성의 층위로 수렴되는 문학적 특질은 작품이 개인적 영역에서 창작·향유되던 소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작 주체의 대청 인식에 따라 공간의 배치 및 문학적 표상이 상당히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창에서 율독으로 소통 구조가 변화하면서 특정한 독자를 상정하게 되는 19세기 작품들의 경우 상당한 장편화 양상을 보인다. 기록성을

주된 원리로 하여 문물에 대한 사실적 재현과 세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무자연행별곡>은 문물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기반으로 한 어휘가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19세기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특질들의 단초적 현상으로서 의의가 있다. 연경에서 체험하게 된 낮선 문화와 이질적 풍경에 대한 표상은 <장유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천령스 드러가니 기화이초⁸⁹⁾ 만발흐디
 비회고면혀여 낫낫치 살펴보니
 디완포도⁹⁰⁾와 월중녀지로다
 픽왕슈⁹¹⁾ 선인장의 계즈천향⁹²⁾이 아닌가
 황금불경 연지판은 각식국화 심어있고
 청춘소연즈는 빅마금편 왕너하고
 북방가인들은 칠양츠 조홀시고
 …(중략)
 러헌국현의 노름 탄도토회⁹³⁾ 고이흐다
 이천피발 빅년한⁹⁴⁾은 한혀여도 혈일업다

위에 인용된 부분을 보면 천령사에서 목도하게 된 ‘기화이초’들이 ‘디완포도’, ‘선인장’, ‘계즈천향’, ‘각식국화’ 등의 구체적 사례들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국적 식물들에 대한 이러한 표상은 세밀한 ‘관찰’의 결과였음이 ‘낫낫치 살펴보니’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또한 ‘빅마금편’으

89) 奇花異草 : 보기 드문 꽃과 이상스런 풀.

90) 大宛蒲萄 :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종자를 가져 왔다고 한다. 《漢書 西域傳上 大宛國》

91) 霸王樹 : 선인장

92) 桂子天香

93) 吞刀吐火

94) 伊川被髮 : 예(禮)가 없어져 장차 야만의 땅이 될 것이라는 뜻. 주평왕(周平王)이 동천(東遷)하였을 때 대부(大夫) 신유(辛有)가 이천(伊川)에 갔는데, 그 곳에서 산발하고 들에서 제사하는 자를 보고는, “백년이 못되어 이 곳이 읍(戎)이 되리라. 예가 먼저 없어졌구나.” 하였는데, 과연 양왕(襄王) 때에 진(晉)나라가 육훈(陸渾) 땅의 읍을 이천으로 옮겼음.

로 오가는 젊은 남녀들과 ‘북방가인’에 대한 관심 역시 청나라의 문화적 풍경을 포착한 후 그것을 기억하고자 한 화자의 의식을 보여준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어휘의 편린들은 향유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추체험이 가시적인 층위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매개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의 연행 체험을 토대로 창작된 <무자서행록>⁹⁵⁾에서는 문물과 풍경에 대한 관찰과 묘사의 편폭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어 흥미롭다. 몇몇 어휘를 통해 주요 식물들을 소개하는 것에 한정되었던 <임자연행별곡>과 달리 <무자서행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와 나무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⁹⁶⁾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름’이나 ‘탄도토화’의 경우도 <무자서행록>에서 구체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다.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희로 국슈쳐로 가늘게 써홀어서
 훈우흙을 님의넙코 석뉴황의 불을혀서
 불삿출 입의물고 부칙로 붓치이니
 코구녕 귀구녕의 연기가 띄여는다
 입으로 비야트니 조희오리 다타지고
 훈줍녀코 태운조희 언마느 흐라마는
 입으로 삿출녀 손으로 뽑아녀니
 어이훈 조희오리 연혀여 니어느와
 두손의 가로잡고 불이느게 뽑아녀
 훈동안을 느은거시 바곤니로 둘셋되게
 구프리고 니러서서 무궁무진 썩바닌다
 ...
 세썩되는 쌍장검을 비마초아 입의물고
 하늘을 우얼어 츠츄로 드리삼켜
 긴칼이 다진히고 즈로만 늙아지니

95) <무자서행록>의 인용문 및 주석 내용은 임기중, 『연행가사연구』(아세아문화사, 2001)에 의거함.

96) 관련된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화초푸리 드러가니 기화이초 다잇는
 덕/ 즐노심은 옥즙화는 향니나기 제일이오/ 푸른삿춘 취도화요 붉은삿춘 도류화라/
 당국풍국 석죽화며 모란즈약 축규화며... 파초난초 종녀쇼철 무화과라 흐는것과”

칼기릭을 헤아리면 빗곱가지 다호리다
이시히 칼을 썩고 철탄즈를 토호는고
그 외의 잔지조는 기록기 어렵도다

인용된 부분에는 입에 종이를 넣고 불을 붙인 후 다시 종이를 뽑아내는 幻戲의 한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긴 칼을 삼킨 후 鐵彈子를 토하는 모습 역시 그 실제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율격 속에 행위와 관련된 동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세밀하게 관찰된 幻戲의 장면이 수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자서행록>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幻戲가 묘사되어 있으며 화자는 중간중간 ‘괴이호고 우수어셔 호마 호면 요절홀번’, ‘어이호 입이완디 그속이 그리닐너’ 등의 감탄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19세기에 창작된 사행가사의 경우 낮은 문물과 이국적 풍속에 대한 관찰의 시선이 정밀한 층위로 변모하여 문학적 표상 역시 사실적 묘사와 감각적 재현으로 구성된다. 장편화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록성이나 흥미를 지향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19세기 기행가사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다.⁹⁷⁾ 그러나 사행가사의 경우 그 체험의 회소성으로 인해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사용된 어휘가 이국적이며 감각적 재현의 방식으로 다채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임자연행별곡>에서 확인되는 문화적 풍경에 대한 관심과 어휘의 특성은 19세기 <무자서행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前兆的 표상으로서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임자연행별곡>의 문학적 특질과 그 의의를 확인하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결론을

97)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역락, 2007), 165~172쪽.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가사문학관 소재 『가사소리』라는 필사집에서 발견된 <임자연행별곡>은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이 1732년(영조 8)에 사은사로 연경을 다녀온 후 창작한 작품임이 확인되었다. 18세기 대청 사행가사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상당하며 17세기 사행가사 작품들의 계보를 잇는 전형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임자연행별곡>은 18세기 초 조선 지식인의 대청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17세기 말을 기점으로 대청관계가 안정되면서 조선은 자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조선중화주의’를 지향하며 대외 인식의 주요 지표로 삼게 된다. <임자연행별곡>에는 북방 영토에 대한 회고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지식인들이 자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확인된다. 명분론의 관념성과 배타성이 약화되면서 연경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현상이 <임자연행별곡>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셋째, 이의현의 문예관과 국문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작품의 창작 맥락과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의현은 영조대의 文衡으로 서인 노론계의 일원이었지만 老莊이나 諸子를 애호하는 등 동시대 다른 문인들에 비해 폭넓고 유연한 문예관을 견지했다. 연행 체험에 대한 연작적 한시도 많이 남겼으며 俗語에 대해서도 典雅한 사용이 전제된다면 그 쓰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시각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넷째, <임자연행별곡>의 주요한 문학적 특질은 문학적 전거의 활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여정의 객관적 나열이 초래할 수 있는 심미적 환기의 단절을 방지하고 문학적 감흥을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공식적 기록인 <임자연행잡지>와 비교해 본 결과 시선의 유연성이 강화되어 사적 층위에서 경험과 공간을 인식하고 형상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7세기 중반 작품인 <장유가>는 중국에 대한 공간 인식이 명분론에 기반한 ‘한탄’의 정서로 수렴되는 반면 <임자연행별곡>의 경우 자

국의 북방 고토에 대한 회고와 청나라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대 인식과 문학적 표상의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 사행가사인 <무자서행록>과 비교해 보면 <임자연행별곡>에서 확인되는 연경의 문화적 풍경에 대한 관심과 어휘의 특성은 前兆的 표상으로서 의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처럼 <임자연행별곡>은 18세기 전반기 대청 사행가사의 존재를 확인케 함과 동시에 공시적·통시적 측면에서의 연구 확장을 가능케 하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정치한 작품론을 기반으로 전후 시기의 사행가사는 물론 기행가사 전반의 특징과 연계하여 생산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가사소리』(<http://www.gasa.go.kr>)

『陶谷集』

『農巖集』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46~63쪽/ 55~56쪽.

임기중,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5.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165~172쪽.

조규익, 『국문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171~178쪽.

허태용, 『조선 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009, 134~170쪽.

- 기정순, 「도곡 이의현의 문장론 소고」, 『한문학논집』 17, 근역한문학회, 1999, 152~153쪽.
-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 8』, 숭실대 한국전통문예연구소, 학교방, 2006.
- 김윤희, 「<장유가>의 표현 양상과 공간관을 통해 본 17세기 사행가사의 특징」,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76~77쪽.
- 민복기,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동양한문학연구』 25, 동양한문학회, 2007.
-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이의현·신유한·조귀명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 장유승, 「도곡 이의현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 31, 한국한시학회, 2009, 301~302쪽.
- 정순희, 「조선중기 고문론 해석의 문제점-도곡 이의현의 문장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2001, 243~244쪽.
- 정옥자,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투고일 : 2009년 12월 31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Imja-Yeonhangbyeolgok>'s creative contexts and literate features

Kim, Yun-hee

This article is the first academic introduction of <Imja-Yeonhangbyeolgok> was created in 1732 (Yeongjo 8) by Dogok-Leeuihyeon.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context and the meanings of poetic history are main points. In the analysis of works it is clear that this work was created by diplomatic experience in the early 18th century.

So it's very crucial the recovery of <Imja-Yeonhangbyeolgok> make possible the expansion of diachronic literary composition. <Imja-Yeonhangbyeolgok> is a recall to the Northern Territories are occupy considerable amount, intellectual effort to enhance its recognition aspects. The desire for Myung(明)'s recovery as the main mechanism of recognition was called Myeongbunron is the mid-17th century's pattern and is also the point of discrimination. As time goes by, the exclusion and idealism of Myeongbunron were disappeared slowly. At the same time the concrete perception of Qing Dynasty(淸) is shown.

<Imja-Yeonhangbyeolgok> is not only reflection of current perception but also creation of a private author based on flexible literate recognition. The main characteristic is the use of literary authority. The itinerary listed the cause of the objective to prevent the severance of the aesthetic and literary inspiration, ventilation. But literary authority are working as the factors doubles literary features in the text. Finally, the <Janguga> in the mid-17th

century was based on the spatial recognition Myeongbunron, so 'lamentable' emotions converged, while the <Imja-Yeonhangbyeolgok> was stressed recognition of Northern old territory and the Qing Dynasty relics era have become notable in terms of recognition and literary representations were able to discover the difference. <Mujaseohaengrok> in the 19th century is compared with <Imja-Yeonhangbyeolgok> in the interest about Yeongyeong's cultural landscape. In the 19th century, exotic customs and lexical representations are transformed to the very precise observations.

Thus, <Imja-Yeonhangbyeolgok> let us know the existence of 'Envoy's Ga-sa' and also enable extension of literate research in synchronic and dychronic field.

Key words : Imja-Yeonhangbyeolgok, the 18th century, Envoy's Ga-sa, Leeuihyeon, Sino-Centralism of Choson dynasty, recognition of Northern old territory, yeongyeong representation of cultural relics, refined literature